

프로야구 일회용품 줄이기 팔 걷어붙여

- 프로야구 구단,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18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사)한국야구위원회, 프로야구 10개 구단*과 ‘1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 두산베어스, 롯데자이언츠, 삼성라이온즈, 키움히어로즈, 한화이글스, KIA타이거즈, KT위즈, LG트윈스, NC다이노스, SSG랜더스(가나다 순)

이번 협약은 프로야구장에서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프로야구 구단 등 관계 기관이 한뜻을 모아 마련된 것이다.

*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16~'17년) 결과, 전국 스포츠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6,176톤) 중 35.7%(2,203톤)가 야구장에서 발생

이에 각 구단은 야구장에서 막대풍선 등 비닐류 응원용품을 쓰지 않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을 줄여나간다. 아울러 공식 응원용품을 다회용 응원용품으로 바꾸고, 버려지는 응원용품을 별도로 회수하여 재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고객이 캔 음료를 구매할 때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일회용컵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00만개*가 쓰였던 야구장 일회용컵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정규 시즌(720경기) 중 약 400만개 일회용컵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22년 기준, KBO 제공)

이밖에 경기장에 입점한 식·음료 판매매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투명페트병이 오염되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도 설치한다.

환경부는 야구장 관객의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분리 배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야구장 내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인증 행사도 진행한다. 협약식 당일, 잠실 야구장 관객(선착순 1,000명)에게 다회용컵을 지급하고, 사용 인증사진을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에 게재하면 추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야구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프로야구 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자발적 협약식 행사개요. 끝.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1회용품 대책 추진단	책임자	팀 장	김남희 (044-201-7417)
		담당자	사무관	황남경 (044-201-7414)



□ **추진배경**

-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막대풍선과 같은 응원용품 뿐만 아니라 일회용 컵, 용기 등 일회용품이 다량 사용
 - ※ 전국 스포츠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6,176톤) 중 35.7%(2,203톤)가 야구장에서 발생(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16~'17년) 기준)
- 프로야구 구단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감량을 유도하고, 관객의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해 자발적 협약 추진

□ **협약식 개요(안)**

- (일시/장소) '23.4.18.(화) 17:30분 / 서울 잠실야구장
- (협약기관) 환경부, 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 * 두산베어스, 롯데자이언츠, 삼성라이온즈, 키움히어로즈, 한화이글스, KIA타이거즈, KT위즈, LG트윈스, NC다이노스, SSG랜더스(가나다 순)
 - ※ 협약식 참석기관 : 환경부, KBO, LG트윈스, NC다이노스((†)당일 잠실야구장 경기참여 구단)
- (협약내용) 일회용 비닐류 응원용품 사용 근절, 일회용 컵 사용 감량,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인식전환 홍보(시즌 중 전광판에 홍보물 송출) 등

시 간		주요 일정	비 고
17:30~17:40	(10')	■ 참석자 사전 환담	참석자
17:40~17:55	(15')	■ 자발적 협약 체결 및 기념촬영	참석자
17:55~18:30	(35')	■ 추가 환담 및 시구	환경부 장관